

부채 국가와 죄책감의 윤리

: 크리스티앙 마라치와의 인터뷰

아이다 도미니자니 Ida Dominijanni

미션 임파서블: 유럽을 구하라! 탈 유럽화의 도미노가 진행되고 이로부터 지정학적 대격변이 일어난 조짐이다. 그러나 내뿜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불황과 침체를 가져올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탐식이 휩쓴 이후, 그리고 공통적인 것의 억압 이후 갑갑스레 참회가 유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앙 마라치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크리스티앙 마라치는 경제학자이며 스위스, 파두아, 뉴욕, 제네바에 소재한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마라치는 급진 좌파 진영의 활동가이자 지식인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금융 위기를 매우 명철하게 분석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2009년 미국에서 위기가 폭발하자마자, 그것의 역사적 성격과 전지구적 충격을 선도적으로 진단하면서, 마라치는 유로존이 위기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고 예견했다. 그는 포스트 포드주의적 생명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름아니라 금융화라고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경제긴축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도, 위기의 모순을 억제할 수도 없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늠해보기 위해, 먼저 유럽의 구제부터 시작해보자.

질) 당신의 분석대로 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겨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디폴트 위협을 겪다가, 불과 몇 주 만에 유로존 전체가 붕괴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사태가 지금처럼 (악화일로로) 진행된다면, 아마도 유럽연합 자체가 붕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사태의 전개를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에 힌트가 나오더군요. 전 유럽에서, 독일과 안젤라 메르켈 Angela Merkel의 경직성에 대한 분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재앙을 피하려면 누구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녀는 둘 다 지지할 생각조차 없더군요. 한편으로는 유럽중앙은행 ECB이 국가 부채를 매각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로본드 Eurobond¹⁾를 발행해, 금융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가산 금리를 줄여야 합니다.

1) [유로본드 Eurobond는 통화국 이외에서 발행하는 통화국 화폐표시 채권, 혹은 외국에서 제3국 통화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유럽지역에서 발행되므로 이런 이름이 붙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질) 선생님 역시 이들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둘 다 매우 중요한 조치로 보이지만 불행히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위기가 너무나 빨리 가속화되어 이들 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거죠. EBC를 미국연방준비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중앙은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EBC가 최종대부자 기능을 맡아 채무 회원국들의 채권을 매입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권력을 넘겨받아 언제 어떻게 개입할지 결정할 수 있겠지요. 이 방안은 더할 나위 없이 신성한 구상이지만 당장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듯이, 유로존이 자본 이탈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죠. 자본 이탈 현상은 최근에 진행된 독일의 채권 경매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풍문에는 스위스가 1,500톤에 달하는 금을 예치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EBC가 부채를 매입하면 이는 자본 이탈을 증가시켜 유로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꼴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유럽중앙은행장, 마리오] 드라기 Mario Draghi조차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아니죠. 유로본드의 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련의 국가 채무를 “상호화mutualize”, 즉 사회화하기 위해, 전체 회원국들이 보증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 역시 합리적인 수단이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의 유동성 고갈로 화폐 비용, 즉 이자가 치솟아 이미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유로본드가 발행되면 [시장의 화폐를 흡수해버리고 오히려] 경제가 튼튼한 국가, 가령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의 경우 순식간에 금리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화요일에 열리는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부분적인 타협안이 나오더라도, 채무국에 부과되는 강도는 유로에 대한 모든 구제책을 무력화할 만큼 가혹할 겁니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질) 결국 [유로의] 붕괴를 예상하나요?

사실상, 통화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수칙에 따라 창출된 단일 통화의 위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확신컨대, 메르켈의 경직성은 독일의 유로 탈퇴와 마르크 복귀를 노린 전술적 책략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벌써 날짜를 받아냈다고 봐야죠. 우리가 다른 일로 한 창 바쁠, 크리스마스나 1월 초 사이가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탈러 태환 중지는 8월 휴가 시즌에 결정했었죠. 여기 스위스에서, 마르크화가 인쇄되고 있다는 도시 괴담이 벌써 돌고 있습니다.

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시는지요?

강력한 통화 지역이 탄생할 겁니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참여하고, 스위스 프랑과 스웨덴 크로나가 결합하겠죠. 유로는 엄청나게 평가절하된 다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겁니다. 유로는 약한 국가들의 통화로 유지될 텐데, 대신에 이들 국가는 부채를 줄일 수 있겠죠. 이러한 가설에서, 프랑스의 역할은 와일드카드입니다. 시장에서 피곤 죽이 된 나라들의 경우, 경제적 수준에서 파국을 맞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격변은 지정학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럽의 분열은 탈유럽화 과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

니다. 탈유럽화는 독일, 중국, 러시아, 브라질을 한 축으로 하고, 프랑스와 미국을 또 다른 축으로 할 겁니다. SF소설이 아닙니다. 국제 금융의 거인들은 이미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중국, 러시아, 터키와의 새로운 냉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들은 이스라엘의 위협에서 이란을 보호할 목적으로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문제는 이러한 [신냉전] 가설이 논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란의 상황은 매우 폭발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저 유럽의 위기만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상황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빈민은 4천6백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실업은 15퍼센트까지 치솟고 있어요. 오바마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며 재선은 공화당의 호전성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질) 미국과 유럽에서 위기의 전개 양상은 어떻게 다른지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유럽의 국가부채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장은 같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유럽의] 채무국 자리를 [미국에서는] 개인 채무자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유럽이 보다 불리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제도와 정치체제 문제입니다. 유럽에는 단일 헌정제도 없고 중앙은행도 없습니다. EBC는 [정부] 부채의 화폐화²⁾를 시장에 위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은행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유동성을 주입하고 있는 형국이고, 이는 공공 부채를 오히려 창출하게 되고 현재는 공채에 대한 투기를 벌이고 있어요.

질) 이러한 거시-지역적이고 글로벌한 틀에서, 국민국가의 내뱉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이탈리아의 경우, 베를루스코니 정권이 물러나고 [마리오] 몬티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기대가 분출했습니다. 또한 몬티의 “전문가” 팀에 대한 기대가 다분했습니다. 마치, 이 팀 덕분에 신뢰도가 회복되고, 효과적인 시작 개입력이 되살아 날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희생”이 국가 채무와 관련 투기에 얼마나 효과적인 일까요?

이결로는 위기를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년 간, 경기후퇴는 불가피합니다. 내뱉 정책은 국내 수요를 압박하는 디플레이션 효과를 미치고, 이를 수출로 만회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뱉 정책은 신자유주의 교리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 교리는 여전히 유럽을 비롯한 서양 전체에 퍼져있으며 끈끈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뱉 정책은 “긴급조치”, 혹은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의 말마따나 “쇼크경제shock economy”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긴급, 쇼크라 함은 내뱉 정책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조치를 허용하기 때문이죠. 임금을 삭감하고, 공공부분의 고용을 줄이고,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2) [정부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는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중앙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정부부채의 화폐화는 본원통화의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부채가 결국 민간 경제주체로 전가되는 셈이 된다. 이런 위험에도 화폐화 조치가 시도되는 까닭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여력까지 바닥날 경우 기댈 곳은 중앙은행 밖에 없기 때문이다.]

등, 유명한 “사회적 도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관리의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 긴급 사태를 맞아 사회적 관계를 전문적이고 기술관료적인 조절에 맡기는 것이죠.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하면서, 중국의 부주석은 이를 적절히 지적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금융적, 사회적 중세 시대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요.

질) 정치적, 인류학적 성격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그저 경제학만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일부 과정은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헌정체가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두 번째, 귀하가 “몬티로의 이행”과 관련해서 언급하긴 했지만, 예외 상태 아래 정치적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세 번째, 복지국가든 부채국가debt fare state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부채국가에서, 사회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의 매개 없이] 스스로를 대표합니다. 특히, 사회적인 것은 부채, 즉 부채와 그 혼용 방식에 따라 표현되고 혼용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인 것은 부채와 죄책감에 의해 표현되고 혼용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어 숄트 Schuld의 이중적 의미를 떠올려야 합니다. 독일어에서 이 단어는 빚과 죄를 동시에 뜻하고, 니체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마우리치오 라자라토Maurizio Lazzarato의 놀라운 책, 『부채인간La fabrique de l'homme endetté』, 그 핵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³⁾ 부채야말로 신자유주의적 인간이 스스로를 혼용하는 인류학적 장치입니다.

질)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해지는군요. 베를루스코니가 통치한 20년 동안 쾌락의 윤리가 지배했다면, 눈 깜빡할 사이에, 몬티 정권의 속죄의 윤리로 이행했군요. 하지만, 이러한 [부채/속죄] 장치가 얼마나 오래 간다고 보십니까? 푸코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자기 사업가self-entrepreneur라고 묘사합니다. 자기 사업가는 결국 빚더미에 앉는 거지만 소비를 통해 자신을 육성하지요. 그런데 신자유주의 주체는 오늘날에도 부채에 대한 죄책감을 먹고 자랄 수 있을까요? 이걸 신자유주의적 윤리의 진화인가요? 위기인가요?

현재로는, 완성된다고 봐야죠. 신자유주의는 부채인간의 형성을 통해 그 본질을 완성합니다. 자기 사업가가 짊어지는 부채는 오늘날 죄책감이라는 장치를 통해 스스로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화폐의 본질 역시 완성되거나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화폐는 곧 부채입니다. 자본의 금융화는 우리 모두를 부채를 짊어진 주체로 변형하고, 가치는 불황/우울증 기계depressive machine를 통해 부정적으로 산출됩니다.⁴⁾

질) 하지만 분노한 사람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봉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분노한 사람들los Indignados⁵⁾과 월스트리트점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3) [마우리치오 라자라토(지음), 허경, 양진성(옮김), 『부채인간 - 인간 억압 조건에 관한 철학 에세이』, 메디치 미디어, 2012.]

4) [불황/우울증 기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프랑코 베라르디(지음), 서창현(옮김), 『노동하는 영혼- 소외에서 자율로』, 갈무리, 2012.]

5) [로스 인디그나도스los indignados는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스페인어로, 2010년 봄 스페인의 젊은 층이 주도한 시위자를 지칭한다. 2010년 5월 15일,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의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서 정부의 긴

생각하는지요?

푸코를 계속 참조해보죠. 푸코식대로 말하면, 아마 분노한 사람들은 파르헤지아parrhesia의 운동, 즉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운동일 겁니다. 이들은 시장의 위선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부채란 “악의적이고” 부당한 것이며 지대와 수탈의 산물이라고 폭로합니다. 이들은 이번 위기의 주범이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모두는 시장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는 관점에서 진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드리드에서 시작된 운동은 무제한적인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마치 공통적인 것의 거대한 제현의회 같습니다. 공적 공간에 같이 머무는 것에 토대를 둔 의회 말이지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이는 홉스주의적 공포의 윤리를 뒤엎는 겁니다. 여기에는 페미니즘의 관계적 실천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으며 돌봄의 경제가 정치 생태학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탈유럽화과정을 방지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운동을 유럽차원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압력은 구체적인 지역의 자기결정권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포스트포디즘의 핵심 장치, 즉 지식과 관계의 수탈을 중단시키려면, 그러한 장치를 공통적인 것의 생산으로 전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내뿜 정책은 사유화privatization를 보다 강화할 것이며, 상수도에서 문화유산까지 공통재common goods를 헐값에 팔아치울 겁니다. 하지만, 공통재를 생산한다는 말은 국지적 층위에서 조직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웃에서 우리 스스로 상수도, 전기, 운송 체계를 관리하고 은행까지 운영할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질) 선생님은 오늘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로레타 나폴레오니Loretta Napoleoni와 <밀라노 여성문고>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2년 전, 나폴레오니는 은행의 사회적 기능은 오늘날 유일하게 이슬람 금융Islamic finance⁶⁾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금융은 투기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위기가 촉발한 모순의 절정에서, 적합한 수준의 연대를 재도입해야 합니다. 계속 고심해야 할 문제이지만, 부채를 재사회화하는 것, 그리고 은행의 기본적 기능은 자본의 금융화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질) 하지만 금융화가 저지되거나 역전될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금융경제와 실물경제는 더 이상 구분될 수 없으며, 금융경제의 토대는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행

측정책에 항의하는 젊은이들에 의해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는 프랑스 파리를 거쳐 유럽의 수도 벨기에의 브뤼셀까지 1700km에 이르는 대장정의 형태로 나타났고, 언론매체는 이들을 분노한 사람들로 불렀다. 이후 이 용어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청년 시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정착됐다.]

6) [이슬람금융이란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일종의 대체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무슬림은 이자의 수취 등 전통적인 금융활동을 금지하는 종교적 규범에 따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낮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전 신탁에 의한 이자의 수취 행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손실과 수익은 사업자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슬람금융이란 이러한 샤리아의 원칙에 합치하도록 모든 금융거래를 구성하는 기법이며, 외형적으로 실물거래를 동반하고 이윤과 손실을 분배하는 공동투자의 형식을 취한다. 이에 따라, 이슬람 금융으로 인정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이슬람교도들도 자유롭게 투자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동과 라이프스타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식료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노동자들은 연기금에 가입해 있고, 중간계급은 주택담보대출로 질식할 지경이며, 빈민들은 “몸뚱이”를 담보로 빚을 끌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부분적이거나, 시스템의 탈 금융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지, 은행의 악행으로부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문제인가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부채를 통해 매우 밀접하게 뒤얽혀 있다면, 위기가 가져오는 침체와 불황을 회피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앞서 논의했듯이 부채를 줄이는 퇴행적인 방식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탈금융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와 소비를 침체시키고, 결국 죄책감 규율은 삶 자체를 절하시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우리는 사적 지대rent를 사회적 지대로 재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채를 사회화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의 수요와 소비를 다시 촉진하고, 공적 공간을 재전유하고, 사회적 관계와 집합적 행복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게 공통적인 것이며, 악화일로를 걷는 금융화의 병폐가 악순환의 경로를 벗어나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이나 토빈세⁷⁾처럼,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적 투쟁에서 활용된 키워드들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질) 파산할 권리를 주장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운동은 이를 삶의 금융화에 맞선 저항권처럼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경제학들은 대중을 현혹하는 운동이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의 기술관료들이 무력화시킨 국가 주권을 재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내가 볼 때, 그러한 운동이 주체적이고 맥락적인 실천이라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국가의 손아귀에 빠지면 회의적일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의 거품이 한 동안 치솟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거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대출과 부당한 대출을 구별하려면, 학생들과 이들의 가족이 파산권을 확고해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산권을 국가에 맡겨서도 안 되고, 이를 통해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려는 국가의 야망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7) [토빈세Tobin's tax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거래당 0.1퍼센트에서 0.5퍼센트)을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금융상품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이 일으키는 통화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